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1004,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 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 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1년 2월 28일 금성교회 주일예배 설교]

본문 : 신 15:7-11 사 58:6-12

제목 :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샘(Spring)처럼

말씀 :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시 150:6)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결코 물이 마르지 않는 샘(Spring)처럼>입니다. 제목에 샘을 나타내는 영어단어 spring을 넣은 것은 제목을 통해서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어단어 spring는 크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spring하면 생각나는 것이 용수철입니다. 동사의 의미는 <튀어 오르다>입니다. 또한 봄을 영어로 spring입니다. 밑에서 솟아오르는 샘을 spring으로 표현합니다.

봄은 죽었던 생명들이 땅에서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모습이 보이기에 spring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샘도 그 안에서 솟아나오는 물의 모습이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기에 spring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뜨거운 물이 밑에서 솟아나는 온천을 영어로 hot spring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일부터는 3월인데 3월의 목회 주제도 2월과 똑같습니다. 소생하는 신앙 회복의 은총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밑에서 물이 솟아나는 샘처럼 그렇게 소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봄의 자연들이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피면서 땅을 뚫고 튀어 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소생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솟아나는 샘이 생존에 필수적인 물을 주변의 자연에게 공급하는 것처럼 성도여러분들의 신앙이 소생되고 회복의 은총을 입어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영이 소생이 되어야 진정한 회복의 은총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영혼이 소생되기 위해서 전주까지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1)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영을 소생시킵니다. 2)기도하는 삶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3)찬양하는 삶입니다. 찬양을 하면 마음이 명량해집니다. 우울하고 답답한 마음에서 소생이 됩니다. 이것에 더하여 사랑을 나누는 일은 우리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사랑을 받는 상대방의 영을 소생시킵니다.

전 전 주에 말씀을 드렸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블레셋 진영으로 도피했다가 다시 성으로 3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다윗이 성을 비우자 아말렉 사람들이 시글락을 침노했습니다. 그들은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갔습니다. 성에 돌아온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들은 그 참혹한 광경에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다윗의 두 아내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더구나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이 잡혀갔기에 마음이 너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다윗의 마음은 심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 물었습니다.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아무 정보도 없이 따라갔습니다. 적들이 온 길로 추격합니다. 그 과정에 다윗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에게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화과 뭉치에서 댄 덩이 하나와 건포도 두 송이를 주었습니다.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사흘을 아무 것도 먹지 못하면서 이대로 죽는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다윗이 묻습니다. 다윗의 인간됨을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힘들어 하는 자에게 먼저 사랑을 베푸는 후에 묻습니다. 그것도 풍성하게 베풀었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술술 풀려 나옵니다. 자세히 묻지도 않은 말이 나옵니다. 배고팠을 때 먹여준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을 감동을 시키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누에고치에서 명주실이 나오듯이 술술 풀려나옵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 때 주인이 나를 버렸습니다.” 한 맺힌 말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병들었을 때 버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입에 달면 먹고 쓰면 뱉으면 안 됩니다. 변함없이 사람을 대해야 합니다. 후에 이 병사를 버린 일 때문에 그 부대가 다 전멸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결정적인 진술입니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의 심장이 뛰었을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이 후의 결말은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압니다.

결국은 다윗은 그 낙오병 소년의 도움으로 퇴각하는 길을 알게 되었고 승리에 가득차서 밤새 술 마시고 춤추고 놀던 아말렉 군대들을 지켜보다가 그들이 지쳤을 즈음인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쳤습니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사백 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습니다.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 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극히 적은 자에게 사랑을 먼저 베풀었습니다. 사랑을 받은 그 낙오자가 먼저 소생이 되었습니다. 적들은 낙오자라고 버렸지만 다윗의 일행은 먼저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 결과 그로 인해서 모든 잃었던 것을 다 찾는 회복의 은총을, 사랑을 베풀다윗의 군대에게 더 나아가 백성들에게 입혀준 것입니다. 먼저 사랑을 받는 자가 소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베풀 자가 소생이 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을 나누면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을 살펴보면 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감당하는 일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눌 것을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본문이 신15: 7-11입니다. 같이 한절씩 읽겠습니다.

“7.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네 손을 움켜쥐지 말고 8. 반드시 네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9.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네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네게 죄가 되리라 10.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과 네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11.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지니라.”

이 구절에서 사랑을 나누는 원칙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1)우선 형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가난한 자를 보면서 마음이 완악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3)가진 것을 움켜쥐어서는 안 됩니다.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4)도울 때에는 그가 필요한 대로 넉넉히 도우라고 합니다.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5)하나님은 그 일에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6)줄 수 있는 형편인데 주지 않으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호소하면 그것이 죄가 된다고 했습니다. 나누지 않는 삶을 살면 소생하는 삶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갈릴리 바다와 사해는 요단강으로부터 같은 물을 공급받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바다는 살아 있습니다. 고기들이 자랍니다. 그런데 사해는 죽은 바다입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바다입니다.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아 사해로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물이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사해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고인 물은 썩습니다.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그 죄악 가운데 한 가지를 에스겔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겔16:49의 말씀입니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소돔의 죄악은 아주 풍부하게 살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주변에 흘러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움켜잡고만 있습니까? 영이 소생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변에 사랑을 흘러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삶은 회복의 은총을 입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욥을 새로운 각도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잘 나가던 욥에게 엄청난 고난이 하루사이에 닥쳐왔습니다. 자식을 다 잃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 일로 심지어 몸에 병이 돌아 습니다.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습니다. 정말 죽지 못해 사는 호흡만 살아 있는 형편입니다.

마음에 신앙에 대한 회의도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욥은 소생이 되었습니다. 소생이 된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욥의 평상시의 삶의 모습을 알게 됩니다. 욥29장에서 알게 됩니다. 욥은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길거리를 가면 지도자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고 했습니다. 들리는 소리가 나를 축복하는 소리이고 눈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2-6절입니다. “12.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 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음이라 13.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15.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16.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평상시 가난한 자를 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땅위에는 가난한 자가 언제든지 그치지 아니할 테니 사랑을 베풀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고 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회복의 은총을 입혀주신다는 말입니다. 결국 욥은 소생이 되었습니다. 신앙부터 소생이 되었습니다.

신앙이 소생이 된 것이 분명한 것은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함부로 말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과 말로 논쟁을 벌이던 친구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신앙이 소생되었다는 말입니다. 그의 삶도 회복되었습니다. 재앙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는 모습으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욥42:10입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주변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이 늘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자연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에덴동산을 잘 관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며 관심을 베풀면 자연에게나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하나님은 입혀주십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쟁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수천 명의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에 생포되어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수용소에는 먹을 것이 부족했고 목욕물은 고사하고 변변히 설 곳도 없었습니다. 들려오는 포성은 포로들의 생명을 위협했고 전염병이 퍼져 수용자들은 계속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비둘기 한 마리가 철조망 넘어 날아들었습니다. 비둘기는 한쪽 날개에 큰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군의관에게 비둘기 치료를 부탁했습니다. 이후로부터 포로들은 비둘기에게 물과 먹이를 주면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마침내 비둘기는 상처를 회복하였고 포로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에 100명 정도 죽어 나가던 수용소에서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 사망률이 60%나 줄었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의 생명을 사랑하면서 치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비둘기가 온전히 치료받는 모습 속에서 포로들은 심령에 생명에 대한 사랑이 소생이 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전해오는 유명한 미드라쉬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장인의 양들을 돌보고 있을 때 어린양 한 마리가 달아났습니다. 모세가 잡으려고 쫓아 가는데 그 어린 양이 어둑어둑한 곳까지 가더니 거기 있는 물웅덩이를 보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양 가까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네가 목마랄 달아 난 것을 내가 미처 몰랐구나, 뛰어오느라고 얼마나 지쳤겠느냐?" 모세는 그 지친 양을 긍휼히 여겨서 어깨에 둘러매고 다른 양들이 있는 데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인간에게 속한 양들을 그리 큰 자비심으로 돌보니 너를 내양들인 이스라엘의 양치기로 삼을 것을 약속하노라"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자연에 대한 사랑의 배려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배려하면서 사는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동물들을 배려하면서 사랑을 그들에게도 나누기를 바랍니다. 하기가 이즈음은 너무 반려 동물을 가족처럼 사랑한 나머지 그들에게 쏟는 정성 못 지 않게 어려운 이웃들에게 쏟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한편 두렵기도 합니다. 먼저 어려운 사람에게 사랑을 나누고 그리고 자연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이 순리입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 삶이 소생이 되고 회복이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자들에게 책망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서 금식을 한다고 하면서 서로 다투고 주먹다툼을 하면서 가난한 이웃을 멸시하는 모습이 무슨 경건한 신앙생활이냐고 책망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 58: 7입니다.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10절 전반부입니다. "주린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조건적인 말씀입니다.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면 그 결과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10절 후반부터 12절까지입니다. "10.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1.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 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어려운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면 그 결과 너는 물댄 동산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수지 같다는 말입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틴에서 저수지 같다는 말은 늘 회복의 은총을 입혀준다는 약속입니다. 특히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다는 말은 밑에서 물이 늘 스프링처럼 솟아 오르는 것처럼 소생함을 입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결코 물이 마르지 않겠다고 했으니 반드시 소생의 은총을 입혀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은총은 그런 소생의 은총을 우리 대에게만 입혀주는 것이 아니라 후손들의 삶에도 입혀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무너진 데를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로 불러지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12절입니다. "12.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후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될 것을 궁극적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만 개인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입니다.

봄 (spring)이 왔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만물이 스프링처럼 튀어 오르는 계절에 어려운 이웃들에게 그리고 자연에게까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사랑을 받는 이웃과 자연들을 먼저 소생시키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소생케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삶도 회복을 시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후손들까지도 회복의 은총을 입혀주셔서 가는 곳마다 주변을 회복시키는 자들로 쓰임 받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좋은 계절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어서 결코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 (spring)처럼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